

기후환경 챙기고 동물복지 지키고... 소비자 위한 '착한 유통'

홈플러스 순식물성 식빵 론칭
GS리테일 가치소비 온라인몰 운영
갤러리아 '케이지프리' 계란 전환
현대백 폐현수막, 가방 업사이클링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함께 기후 환경,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착한 소비'가 유통가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채식, 동물 복지와 관련된 상품군을 크게 늘리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모아 업사이클링을 시도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9월 발표한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행동'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98.5%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운동(Zero waste)에 공감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일상 속에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 중이다. 또 응답자의 54.3%는 10% 이내의 추가비용 지출에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 성향 자체가 빠르게 가치 소비로 전환하며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대체육부터 동물복지계란까지... '먹을 때도 신중하게'



환경과 동물권·동물복지를 고려해 상품을 구입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유통업계도 관련 상품을 갖추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비건 제품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홈플러스는 10월 28일 자체 베이커리 '몽블랑제'를 통해 순식물성 식빵을 론칭했다. 우유와 계란, 버터 없이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었다. 또 전국 52개 주요 점포에 비건 상품을 모아 진열하는 '비건존'을 조성하고 대체육 브랜드 등을 들여와 판매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채식 맞춤형 식품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 2016년부터 대체육을 연구한 신세계는 4월 대체육 치킨 너깃을 출시해 한 달 만에 10만개를 완판 시키기도 했다.

GS리테일은 가치소비 온라인몰 '달

리살다'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유기농, 친환경, 무화학첨가물, 동물복지, 비건 등 총 78가지 핵심 가치 키워드를 기반으로 엄선한 국내외 우수 상품 3000여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론칭한 후 1년만에 매출이 7배 이상 성장했고 최근 한달 일 평균 매출은 론칭 초기 대비 621% 증가했다.

갤러리아는 동물자유연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3년까지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계란을 모두 방목 사육한 닭이 낳은 '케이지프리' 계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0월부터 명품관과 고

메이494 한남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이미 케이지 프리로 전환했다.

이마트 성수점은 21일 동물복지 계란 매대를 기존의 2배로 키웠다. 계란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닭이 쉴 수 있는 햇대 설치 등 140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동물복지 계육 매대도 대폭 키웠다. 일반적으로 동물복지 계란 등은 일반 계란에 비해 2배에서 3배 가량 비싸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물복지 계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육을 포함한 동물복지 관련 신선 제품의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5% 늘었다.

◆소비자의 제로웨이스트, 유통가가 돕는다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 중이다. CU는 28일부터 강남구 직영점과 BGF사육에 폐(廢) 페트병 수거함을 설치했다. 수거한 페트병은 뷰티 브랜드 아로마티카가 모아 PCR(사용 후 재활용 용기), 친환경 굿즈 등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벌이는 친환경 캠페인 'Be Green Friends(비 그린 프렌즈)'의 세 번째 활동으로 점포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현대백화점은 외벽에 내걸었던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해 가방으로 만들어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 소각 처리되는 1톤 규모의 폐현수막을 가방으로 제작하면 약 2.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은 내년부터는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연간 사용하는 3톤 규모의 현수막 전부를 재활용할 예정이다.

포장 용기 배출을 줄이는 리필 스테이션도 계속 생기는 중이다. 리필스테이션은 소비자가 용기를 준비해 내용물만 구입하는 방식으로 세제 등이 주 대상이다. 지난해 이마트를 시작으로 신세계, 편의점 세븐일레븐, GS25 등이 리필스테이션을 설치했다. 다만 이마트 등은 필요한 양만 담고 무게 만큼만 값을 지불하는 서초구 '덕분에', 마포구 '알맹상점' 등 전문 리필 스테이션 매장과 달리 전용 용기에 정해진 용량만큼만 구입 가능해 '그린워싱'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린워싱은 제품 생산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친환경과 거리가 멀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데 친환경을 내세우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뜻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마트24 "마스크 구매시 3개 더 드려요"

1900개 상품 1+3 등 파격 혜택
먹거리 행사상품 전년비 30% ↑

이마트24는 11월 1900여개 행사상품을 준비하고 1+3, 더블 증정 등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이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1월 1일~7일까지 '아이원 에어포레스트 방역마스크(KF94, 3입)'를 1+3으로 판매한다. 8일부터는 말일까지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케이지 3중 필터마스크 소형(10입)은 11월 한 달간 1+2, 비말차단마스크(KF-AD)는 1+1로 판매한다.

또, 1일~7일까지 인기 도시락 3종(새우고추장채&불고기덮밥, 한돈불고기비빔밥, 뉴트로치킨마요 덮밥), 파스타 2종(돈까스&아라비아파, 소시지나폴리탄) 등 총 5종에 대해 구매 시 컵라면



이마트24는 11월을 맞아 1900여개 행사상품을 준비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수(500ml)를 모두 제공하는 더블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밖에 11월 한 달간 초저가 가성비 상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민생물휴지/치약/가글/타이즈 등 민생 상품도 1+1으로 판매한다.

이마트24는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고객

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용품, 위생용품, 여성용품 등 생필품과 주류, 가공식품 등 먹거리 행사상품을 지난 해 11월 대비 30% 이상 늘렸다.

아울러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마트24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총 5회(1일/3일/5일/10일/12일)에 걸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 회차 마다 추첨을 통해 LG룸앤TV(1명), 이마트24 할인쿠폰(1만원 구매 시 1000원 할인, 100명)를 선물하며, 5회 모두 참가해 정답을 모두 맞춘 고객 2명(추첨)에게는 LG스탠바이미를 선물한다.

퀴즈 이벤트는 해당 일자 오전 10시에 이마트24공식SNS(인스타그램)를 통해 업로드 되는 퀴즈를 확인 후, 정답을 이마트24 모바일앱 이벤트 페이지에 남기면 자동 응모가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온·오프 700개 브랜드 역대급 할인 '평평'

이랜드그룹 창립 41주년

초특가 장보기 등 사은행사·이벤트

이랜드리테일의NC, 뉴코아, 이천일 아울렛, 동아 등 도심형 아울렛 전 지점과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이랜드몰이 일주일간 역대급 할인 혜택을 담은 '이랜드 창립 41주년 쇼쇼쇼'를 진행한다.

이랜드그룹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국내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온라인 이랜드몰에서도 총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랜드리테일의 도심형 아울렛에서는 다음달 3일부터 일주일간 브랜드세일과 초특가 장보기 등의 사은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지점에 입점한 인기 브랜드가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랜드리테일 PB와 슈즈 SPA '슈펜', 리빙 SPA '모던하우스'가 특정 기간에 20% 브랜드데이를

진행한다.

김스클럽에서는 일주일간 겨울 김장맛이 기획전과 겨울맛이 먹거리대전을 통해 전국 각지의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특별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감성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한정판 굿즈 바리스타 앞치마를 증정하고, 럭키박스 이벤트와 창립 축하 댓글 이벤트 등을 연다.

이랜드리테일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랜드몰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10시, 12시, 14시에 오픈하는 선착순 득템 행사를 통해 인기 브랜드 반값쿠폰과 특가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요일별 스페셜 브랜드 할인 행사, 릴레이 극한특가, 릴레이 브랜드데이, 심야타임 특가 등을 펼친다.

이에 더해 매일 100% 당첨 잭팟 이벤트를 통해 99%, 50% 할인 쿠폰 및 포인트를 제공하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스페셜굿즈도 준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롯데온, 명품 겨울의류 최대 70% 할인

7일까지 '퍼스트먼데이&애프터워크'

롯데온은 11월 1~7일 '퍼스트먼데이 & 애프터워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에는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등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인 더콘란샵 특별 라이브 방송도 준비했다.

이번행사는 헤지스, 타미힐피거, 베베드피노 등 의류 브랜드 및 버버리, 몽클레어 등 명품 브랜드의 겨울 의류를 중심으로 준비됐다. 대표 상품으로 헤

지스 남성 겨울 티셔츠를 정가 대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타미힐피거 남성·여성·아동 겨울 의류를 정가 대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명품 패딩으로는 '버버리 디테치블 후드 여자 패딩'을 최종 혜택가 130만원 대에, '몽클레어 탈레브 여성 패딩'을 최종 혜택가 190만원 대에 선보인다.

1일 더콘란샵 라이브 방송은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더콘란샵 1호점에서 진행하며, 덴마크 리빙 브랜드 구비의 대표 인기 상품을 비롯 쿠션, 러그 등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방

송 중 퀴즈쇼 당첨자와 구매 실적에 따라 추첨을 통해 덴비 머그, 다미양빨랑 디자인 에코백, 더콘란샵 온라인몰 10만원 금액권을 증정한다.

'몰래온(ON) 산타'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1번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아크네 머플러를, 2번 이상 구매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몽클레어 패딩을 증정한다.

한편, 앞서 10월 18~27일 진행했던 '롯데온세상'은 전년 동일 행사 대비 73%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상품별로는 셀러 매출 신장률이 117.8%로 가장 높았으며, 백화점 상품과 마트 상품의 매출 신장률이 각각 49.2%, 10.5%로 전 부문의 매출이 신장했다. /김서현 기자

인터파크 "영암 특산품, 라방서 만나세요"

한우·고구마 등 최대 40% 할인

인터파크가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라남도 영암군과 함께 라이브커머스 '인터파크TV 영암군 편'을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

전남 지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번 '인터파크TV 영암군 편'은 코로나19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인터파크는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한우, 고구마, 쌀 등 영암군의 특산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라이브 방송은 인기 개그우먼 안소미가 쇼호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방송 종료 후 인터파크는 '팔도보부상' 프로모션에서 11월 15일까지 상품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